

국산 국화 품종으로 내수 공략

농진청, 일본 소비시장 잡은 '백마' 이어 '백강' 국내 보급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국화 품종 '백마'가 일본 소비시장 공략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백강' 품종이 국내 소비시장 공략에 나섰다.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흰색형 저항성 국화 '백강'이 국내 소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백강'은 지난 2015년 육성한 백색의 대형(스탠다드) 국화로, 꽃이 13.4cm로 크고 꽃잎 수가 277장으로 많으며, 특히 국내 소비시장에서 선호하는 동근 모양을 띠고 있다.

또 꽃잎이 단단하고 잘 찢어지지 않아 수송성이 좋으며, 자른 꽃(절화) 수명은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길다.

무엇보다 국화 재배 시 가장 큰 골칫거리인 흰녹병에 강한 저항성을 띠는 데 이어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 10아르(당) 83만 6,000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강'은 2018년부터 화훼농가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해 2019년 5만 본, 2020년 48만 본이 생산됐으며, 올해는 100만 본(2.95ha) 이상이 재배되고 있다.

'백강'은 최근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높은 경쟁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평균 경매가는 속(20송이)당 6,921원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대형 국화시장은 일본 품종인 '신마'와 '백선'이 80%가량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백강'이 신마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국화 주 소비자인 화훼 중도매인과 화환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 '백강'은 꽃 크기, 모양, 색, 자른 꽃 수명 등이 우수해 일본 품종 신마 대체 가능성이 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주에서 2018년부터 '백강'을 재배하고 있는 국정호 씨는 "백강은 흰녹병에 강해 일 년 내내 병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고 꽃이 예쁘고 생명력이 길어 상품화되는 비율이 높다"며 "지난해 15만 송이를 생산해 6000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특히 국씨는 "백강이 신마보다 재배



일본 소비시장 공략에 성공한 '백마'.

기간이 1개월가량 짧고 병해충 방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앞으로 많은 국화 재배 농가에서 '백강'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화훼장식가 이지영 씨(전주시)는 "백강은 동근 모양에 꽃을 오래 보길 원하는 우리나라 소비자 기호에 맞고, 꽃이 튼튼해 수송과 유통하기에도 좋다"며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국내 대형 국화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산 국화 품종 '백마'는 국화 최대 소비국인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10년 넘게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본 국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백마'는 꽃 크기 13.6cm의 국내 최초 순백색의 대형(스탠다드) 품종으로 일본 품종 신마와 비교하면, '백마' 꽃잎은 340장으로 신마 200장보다 많고, 자른 꽃 수명도 백마는 3~4주로 신마보다 1.5~2배 오래 간다.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지난 2007년부터 일본으로 본격 수출되기 시작한 '백마'는 지난해까지 수출량 2,438만 000본, 수출액 1478만 2,000달러를 기록했다.

'백마'는 국산 품종 점유율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백마' 탄생 이후 지속적인 보급으로 2006년 0.9%에 불과했던 국산 국화 품종 점유율은 지난해 33.1%까지 향상됐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정재아 농업연구사는 "백강은 국화 주 소비층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백마'는 일본 시장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고, 내수와 수출시장 모두에서 통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1일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기에 앞서 지난달 16일 소수장 변호사와 국산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국민연금공단, 보호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1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밀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16일 소수장 변호사와 국산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

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김희준 연구개발국장 부임

농촌진흥청의 인사 단행에 따라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 연구개발국장에 김희준(59) 작물 식품과장이 승진 임용되었다.



김재 출신으로 우리 지역 원광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졸업한 김희준 연구개발국장은 1988년 순창군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사로 공직을 시작해서 1992년 농업연구소로 전직 원예산업과장, 약용작물연구소장, 종자사업소장, 작물 식품과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기획과 업무 추진에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희준 국장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전라북도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달러 환테크에 관심 있으신가요?

전북은행, JB글로벌 외화 정기예금 출시 기념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일부터 달러 환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한 'JB글로벌 환테크 외화정기예금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9월 30일까지 JB글로벌 환테크 외화정기예금 최초 신규 고객으로 최초 가입 금액이 미화 1천불 이상 미화 2천불 미만인 경우 스타벅스 커피 쿠폰 1매, 미화 2천불 이상인 경우 쿠폰 2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당일해지 건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예금 가입 시 고객이 원하는 환율 수준을 지정하고 은행이 매일 1회차로 고시하는 환율이 고객 지정환율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따라 입금되는 지정환율(AUTO)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자산 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환율 수준과 지정환율을 비교할 수 있는 일일 서비스를 매일 15일마다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약달러 현상으로 환테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를 반영한 외화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달러 환테크에 관심있는 고객들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택배기사 등에 폭염기 얼음 생수 지원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폭서기를 맞아 택배기사, 집배원 등 공사 관리 임대주력에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폭염대비 얼음생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주택 경비실 택배실 입구 등에 비치된 아이스박스에서 얼음 생수를 비치해(4,000개) 더위에 지친 편의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농관원 익산사무소 원산지 표시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소장 김태환) 이하 '농관원 익산사무소'는 지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익산 관내 전통시장 6곳(남부, 동부, 금마, 서동, 중앙, 북부)에서 시장 상인회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6개 전통시장 상인회 명예감사원, 농관원 익산사무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캠페인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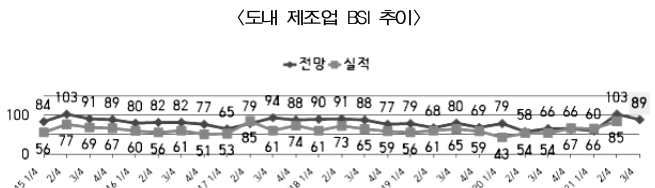
3분기 도내 제조업체 체감경기 '부정적'

1분기만에 상승세 꺾여 원자재가격 상승 등 주된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생산, 고용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 등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다음 분기 도내 제조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상섭)가 도내 1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89로 집계된 전북지역 기업들의 3분기 경기 전망은 지난 분기 대비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



고, 100이하면 반대다.

업종별 전망치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음식료(138)와 화학(125)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준치 '100'을 하회한 가운데, 섬유유복(40) 업종은 계절적 비수기로 지난 분기 대비 전망 지수가 크게 하락하며 3분기 부진을 예상했다. 아울러 비금속광물(55)과 종이나무(50), 전기전자(42) 업종 등이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138)은 기준치 '100'을 상회하며 경기상승에 대한 높은 전망치를 나타낸 가운데, 자급력이 약한 중견기업(40)과 중소기업(50)은 3분기 경제전망을 더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유형별로는 수출기업은 '133'을 기록하며 호조를 기대한 반면, 내수기업은 '87'을 기록하며 기준치 '100'을 하회했다.

윤상섭 전북상협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고비를 넘기고 꾸준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만큼 기세를 몰아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과잉규제와 대내외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가 등 원자재가격 안정과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받을 충격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인 완충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씨 적은 수박, 라이브 커머스 통해 구입을

전북농협, 네이버 쇼핑 통해 20%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가격인정을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네이버 쇼핑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로 씨 적은 수박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농업인을 지원하고 비대면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디지털 유통대변화를 선도하고자 기획됐다. 촬영은 수박 선별장이 있는 익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진행하며, 주문 받은 수박은 주문농장에서 2~3일 정도 예상한 후 발령특허를 받게 된다.

이번 상품은 익산시 통합브랜드인 '탐마루 수박'으로 익산시 북부권(망성, 용안, 용동)을 중심으로 약 52ha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110여 명의 공동 선별회원이 엄선한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특등급 수박이다.

방송시간 동안 씨 적은 7kg 아이스 수박을 시중가 대비 20% 저렴한 가격인 1만 8,000원에 500개 한정 무료 배송·판매한다. 또한 방송 중 추첨을 통해 공덕농협 고구마 발령이 증정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새로운 유통트렌드로 라이브 커머스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역 내 많은 농협들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농산물 유통 채널 개선과 디지털 전환으로 제값 받는 농업에 한걸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각 산지농협이 손쉽게 직접 온라인 상품을 발굴하고 상품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 공간인 온라인 지역센터를 7월 중순경 농협전북본부에 개소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오늘부터 사흘간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장터'

양파 등 완주 고산 미소시장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고산미소시장 상인회(회장 배경화)는 고산 미소시장에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양파·마늘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험 키트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장경영 바우처사업을 활용해 지역 농가를 돕고 참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한 고산미소시장 특산품 꾸러미 판매와 문화체험 키트 나눔 행사, 행운권 추첨 등 시장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상인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직거래 장터를 통해 양파, 마늘 등 특산품 꾸러미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기간 내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문화체험 키트 나눔 행사 및 매시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비대면·온라인 소비로 바꾸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면 거래가 일반적인 전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 시장이 갖는 장점을 활용해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북중기청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